Korean J Relig Educ 종교교육학연구
Vol. 86, pp. 119-136, September 2026 pISSN 1229-6627
https://doi.org/10.58601/kjre.2026.09.30.06 eISSN 2672-176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od, Human Beings, and Education in Comenius's Educational Thought

Yongdeok Lim*
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od, human beings, and education in Comenius's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formation, and to examine its expansion through *pampaedia* across the life course, community, and the world.

[Cont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reviews research on didactic principles, *pansophia* and *pampaedia*, and human formation. It analyzes God as the ground of educational possibility and order, human beings as objects of formation and responsive subjects, and education as a mediating structure of relational formation. It also interprets this relationship as a multilayered cyclical structur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our conclusions are drawn. First, the understanding of God grounds human existence and directs education. Second,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possess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but require education because of the Fall. Third, education mediates the integrated formation of intellect, virtue, and spirituality. Fourth, God, human beings, and education are not elements of equal status but are asymmetrically and purposively related, with God as the ultimate ground. Through *pampaedia*, human formation expands across the life course, community, and the world.

[Keywords] Comenius, God, Human beings, Human formation, Multilayered cyclical structure, Pampaedia

This article revises and expands upon part of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26).

* **Corresponding author** Yongdeok Lim (Lecturer,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 limyd@korea.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 나타난 하나님 · 인간 · 교육의 구조적 연관성

임용덕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 나타난 하나님 · 인간 · 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을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밝히고, 이 관계가 범교육을 통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로 확장되는 양상을 해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교수학적 원리, 범지혜와 범교육, 인간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하나님을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로, 인간을 형성의 대상이자 응답의 주체로, 교육을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성 · 덕성 · 영성의 통합과 점진성 · 직관성 · 실천성의 교수 원리를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나님 · 인간 · 교육 이해의 연관성을 '다층적 순환 구조'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범교육이 인간 형성을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이해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 근거와 교육의 목적을 제공하며 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규정한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형성 가능성을 지니지만 타락으로 인해 교육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배우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응답의 주체이다. 셋째, 교육은 지성 · 덕성 · 영성의 통합적 형성을 매개하는 관계적 실천이다. 넷째, 하나님 · 인간 · 교육은 동일한 위상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 근거로 하여 비대칭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순환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범교육을 통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된다.

[주제어] 코메니우스, 하나님, 인간, 인간 형성, 다층적 순환 구조, 범교육

Received August 06, 2026 / **Revised** September 06, 2026 / **Accepted** September 09, 2026

Ⅰ. 서론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의 교육사상은 근대 교수학과 학교교육의 체계화, 범지혜(*pansophia*)와 범교육(*pampaedia*), 인간 형성과 세계 개혁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의 교수학적 성과와 교육사적 위상을 밝히고, 교육의 대상을 모든 인간과 전 생애로 확장한 사상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수 원리, 지식의 통일성, 인간 형성의 목적이 각각 분리된 주제로 다루어질 경우,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님 이해[1], 인간 이해, 교육 이해의 관계 구조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드러나기 어렵다. 코메니우스에게 교육은 효과적인 교수 기술이나 지식 전달의 제도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으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교수학적 체계와 실천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그의 교육론이 임의적인 교수 기법의 집합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발달 과정에 상응하도록 조직된 일관된 체계임을 밝혀 왔다. 『대교수학(*Didactica Magna*, 1657)』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단계적 조직, 감각과 사물에 근거한 직관적 교수,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원리, 앎을 실제 행위로 연결하는 실천적 학습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Lee, 1989: 956-965, 966-975; Maviglia, 2016: 59-61). 또한 『대교수학』의 네 단계 학교와 『범교육학(*Pampaedia*, 1960)』의 전 생애적 교육 체계는 교육이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삶의 단계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 주며(Lukaš & Munjiza, 2014: 34-35, 37-39), 사물과 감각, 언어를 결합하고 실제 세계와의 접촉을 중시한 점도 코메니우스의 교수론이 구체적 경험을 통한 형성을 지향했음을 보여 준다(Hill, 1975: 303-306). 이러한 연구는 코메니우스가 교육의 보편성과 체계성을 구체적인 학교와 수업의 원리로 구현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만 교수학적 원리 자체에 분석이 집중될 경우, 자연의 질서가 왜 교육의 기준이 되는지, 인간이 왜 교육되어야 하는지, 교수 방법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을 형성하려는 것인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흐름은 범지혜와 범교육을 중심으로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범위를 학교교육을 넘어 지식의 통일성과 모든 인간을 위한 교육의 문제로 확장하여 이해하였다. 범지혜와 범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이 지적 앎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전체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Chung, 2003a: 28-30; Na, 2014: 102-115, 167-188).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메니우스의 삼중적 교육관을 나타내는 지식(*eruditio*)·덕성(*moralitas*)·

1) 코메니우스의 '하나님' 이해는 창조와 섭리의 주체라는 기독교 신학적 맥락에서 그의 인간 이해와 교육 이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신(神)'보다 '하나님(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신앙(*pietas*)을 문맥에 따라 지성・덕성・영성의 형성 차원으로 표현한다.[2] 또한 범교육은 교육을 아동기와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과 전 생애로 확대하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연령과 처지와 소명에 맞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포함한다(Choi, 2005: 121, 146-149; Chung, 2003b: 69-76; Na, 2015: 271-298). 국외 연구에서도 Spinka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혜를 신학, 철학, 교육을 통일하려는 사유 원리로 해석하였고(Spinka, 1953: 156-161), Čížek는 범지혜가 범개혁(*panorthosia*)의 전망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Čížek, 2019: 204-217). 이러한 연구들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 인간과 공동체 및 세계의 개선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보편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왜 교육되어야 하며, 지성・덕성・영성이 왜 함께 형성되어야 하고, 개인의 형성과 공동체 및 세계의 개선이 어떠한 근거에서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교수 방법이나 지식 체계보다 인간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주목된다. Hábl은 코메니우스 교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성품 형성의 문제를 부각하며, 그의 교육론이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다움과 도덕적 삶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해석하였다(Hábl, 2011: 142-143, 147-148; Hábl, 2015: 116-123). 코메니우스의 지식론을 *Bildung*의 관점에서 검토한 Velilla-Jiménez 역시 코메니우스가 요구한 앎은 정보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인간이 사물의 원리와 원인, 올바른 용도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지혜였다고 보았다(Velilla-Jiménez, 2025: 434-443). 인간과 교육의 관계를 다룬 연구 또한 코메니우스가 인간을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사물을 함께 알아야 할 관계적 존재로 이해했음을 강조한다(Kim, 2006: 65-66). 이러한 인간 형성론적 접근은 교수 방법, 범지혜, 범교육을 교육 목적의 관점에서 다시 연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 형성을 하나의 독립된 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구조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성은 무엇을 근거로 가능하며, 형성되어야 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교육은 그 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서 하나님 이해는 인간 존재와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의 근거가 되고, 인간 이해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며, 교육은 이러한 이해를 인간 삶의 구체적인 형성 과정 안에서 실천적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교수 방법, 범지혜, 범교육, 인간 형성은 서로 병렬된 개별 주제라기보다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육 이해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육 이해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연관되면서 인간 형성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관계를 '다층

2) 여기서 지성・덕성・영성은 *eruditio*・*moralitas*・*pietas*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일대일로 번역한 용어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메니우스의 삼중적 교육관이 지향하는 형성의 차원을 드러내기 위해, 앎과 분별의 차원을 지성(intellect)으로, 도덕적 의지와 실천의 차원을 덕성(virtue)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지향의 차원을 영성(spirituality)으로 표현한다.

적 순환 구조'로 파악한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간 형성'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 계발이나 일반적 인격 함양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과 공동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이해하고 지성・덕성・영성의 질서를 갖추어 가는 교육적 과정을 의미한다. 코메니우스에게 인간은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이름을 부여하며, 그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Comenius, Chung trans., 2008: 56). 또한 코메니우스에게 참된 앎은 지식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질 때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Comenius, Jeong trans., 2013: 229, 237). 따라서 인간 형성은 인간 내부의 가능성을 단순히 발현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과 관계적 책임을 배우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Hábl, 2015: 120-122; Velilla-Jiménez, 2025: 431-437).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을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밝히고, 이 관계가 범교육을 통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로, 인간을 형성의 대상이자 응답의 주체로, 교육을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로 분석한다. 이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성・덕성・영성의 통합과 교수 원리가 인간 형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인간・교육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층적 순환 구조의 의미를 보다 엄밀하게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범교육이 인간 형성을 개인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코메니우스의 주요 저작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에 기초한다. 다만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연구사를 다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대교수학』, 『범교육학』, 『빛의 길』 등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저작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육 이해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각각 논의되어 온 교수학, 범지혜와 범교육, 인간 형성의 성과를 이 관계 구조 안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주제를 단순히 종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근거와 인간 이해, 인간 형성의 내용과 실천, 범교육의 공적 확장이 어떠한 관계적 질서를 이루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다층적 순환 구조'는 하나님・인간・교육 이해의 구조적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해석적 개념이다. '다층적'은 관계를 이루는 층위들의 위상 차이를, '순환'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성・덕성・영성의 통합적 형성이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형성과 범교육의 확장이라는 연구 문제에 한정하여 이 개념을 재구성한다.

Ⅱ.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서 하나님・인간・교육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세 요소를 각각 독립된 주제로 분리하기보다, 각 요소가 인간 형성의 근거와 방향 및 실천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이해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 근거와 교육의 목적을 제공하고, 인간 이해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및 내용을 규정하며, 교육은 이러한 이해를 인간 삶의 형성 과정 안에서 구체화한다. 따라서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은 세 요소의 단순한 병렬이나 상호 대응을 의미하기보다, 교육의 근거와 형성의 대상, 형성의 실천이 하나의 관계적 질서 안에서 연결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본 장에서는 이를 하나님을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로, 인간을 형성의 대상이자 응답의 주체로, 교육을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

코메니우스에게 하나님은 교육론의 외부에 부가된 종교적 전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존재하는 근거이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의 원천이고, 인간 형성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따라서 교육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 있다는 심리학적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과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그 질서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해가 교육 가능성의 근거를 이룬다. 코메니우스에게 교육은 인간의 자율적인 능력이나 자연적 잠재력에 대한 낙관에서 출발하기보다, 인간과 세계에 질서와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는 창조 이해에 기초한다.

『대교수학』은 교육을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보편적 기술”로 제시한다(Comenius, Jeong trans., 2013: 3). 그러나 여기서 기술은 인간에 관한 일정한 이해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수업 기법을 뜻하지 않는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있다. 실제로 코메니우스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이면서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을 지닌 존재이며, 창조주의 형상과 기쁨이 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Comenius, Jeong trans., 2013: 33-34).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목적은 이러한 인간 이해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질서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적 인식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범교육학』에서 코메니우스는 세상, 인간 정신, 계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세 권의 책으로 제시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세상의 책’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접하는 ‘정신의 책’, 그리고 『성경』에 담긴 ‘계시의 책’을 구분하면서, 이들이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통로임을 설명한다(Comenius, Chung trans., 2008: 35-36). 이에 상응하여 감각, 이성, 신앙은 각각의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인간의 인식 수단으로 기능한다(Čížek, 2019: 204-217; Spinka, 1953: 156-157).

여기서 세상과 인간 정신을 '책'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들을 문자로 기록된 실제 책과 동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과 인간 정신, 계시가 인간에게 읽히고 해석되어야 할 지혜의 매체라는 점을 나타내는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감각을 통하여 관찰하고 이해해야 할 질서의 장이며, 인간 정신은 그 질서를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부여된 내적 인식의 장이다. 『성경』은 이들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지식 원천이라기보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인간의 인식이 바른 방향을 갖도록 하는 계시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세 권의 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세 종류의 지식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사적 장치라기보다, 자연과 인간 정신 및 계시가 동일한 창조주에게 근거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앎에 참여한다는 관계를 보여 준다(Comenius, Chung trans., 2008: 35-36; Čížek, 2019: 204-217; Spinka, 1953: 156-157).

이러한 인식 구조에서 범지혜의 통일성은 여러 학문을 외형적으로 결합하는 데서 성립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과 자기 정신, 계시를 서로 단절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통일성이 형성된다. 하나님 이해는 이때 세계 이해의 바깥에 부가되는 종교적 요소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지식의 관계를 하나의 질서 안에서 이해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교육의 과정과 연결한다. 코메니우스는 피조물에게 창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와 수단이 부여되었으며, 인간 역시 자신의 존재 안에서 부여된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지어졌다고 보았다(Comenius, Chung trans., 2008: 34-35). Hábl이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를 인간 형성과 교육 가능성의 형이상학적 배경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Hábl, 2015: 122-123).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임의로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문화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부여된 가능성이 일정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형성되도록 돕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 즉 '자연을 따르는 교육'의 의미도 규정한다. 코메니우스에게 자연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율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나타나는 창조 세계이다. 따라서 교육이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자연 현상을 피상적으로 모방한다는 의미보다, 인간의 인식과 성장에 부여된 질서와 단계에 맞추어 교육을 조직한다는 뜻에 가깝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감각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교수 원리는 이러한 질서를 교육의 방법 안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e, 1989: 956-965, 966-975; Maviglia, 2016: 60-61; Schaller, 1969: 39-41).

결국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서 하나님은 교육 가능성의 근거인 동시에 교육의 방향과 목적

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인간이 교육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일정한 질서와 목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해와 연결된다. 또한 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중립적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자신과 세계에 부여된 질서를 인식하고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형성의 실천으로 자리한다.

2. 인간: 형성의 대상과 응답의 주체

하나님이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라면,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할 존재이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이해는 하나님 형상*(Imago Dei)* 개념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단순히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세계를 책임 있게 다루도록 창조된 목적론적 존재이다. 인간의 지성, 의지, 도덕적 책임과 영적 지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Choi, 2011: 283-290; Comenius, Jeong trans., 2013: 33, 45-47).

코메니우스는 인간에게 부여된 세계와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 이름 짓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다(Comenius, Chung trans., 2008: 56). 관찰은 인간이 세계의 질서를 인식하는 행위이고, 이름 짓기는 사물의 의미를 분별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며, 행동은 인식한 바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인간은 교육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며, 배운 바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인간에게 외부의 지식을 부가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도록 형성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현재의 인간 상태에 대한 낙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에게 인간은 창조된 목적과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세계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관계 맺는 능력이 손상된 존재이다. 타락은 단순한 지식의 결핍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의지, 욕망과 삶의 방향을 왜곡한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이해에서 창조와 타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측면이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설명하기 때문이다(Kim, 2006: 64-65, 72-75; Lee, 1987: 120-121, 129-132).

그렇다고 타락이 인간 형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 안에 지식・덕성・신앙을 향한 ‘씨앗’이 남아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교육과 훈련 및 실천 없이 스스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고 보지는 않았다(Comenius, Jeong trans., 2013: 63). 씨앗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형성되어야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형성의 근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존재도 아니며, 자신의 자연적 능력만으로 창조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교육의 가능성은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과 그에게 남아 있는 형성의 가능성에서 나오며, 교육의 필요성은 그러한 가능성과 삶의 방향이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나온다.

이 지점에서 인간 본성과 인간 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간 본성(human nature)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보편적이고 존재론적인 토대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인간 형성은 타락 이후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과 공동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지성・덕성・영성의 질서를 갖추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를 타락 이전 인간 본성의 완전한 복귀로 이해하기보다, 인간이 주어진 존재의 근거와 목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간 형성'을 독일 교육철학의 *Bildung*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가 코메니우스의 지식론을 *Bildung*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 획득을 넘어 인간 전체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Velilla-Jiménez, 2025: 434-443). 그러나 본 연구는 *Bildung* 자체의 개념사적 전개를 분석하거나, 후대 독일 교육철학에서 형성된 *Bildung* 개념을 코메니우스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인간 형성'은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지성・덕성・영성의 질서를 갖추어 가는 교육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표현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구분은 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한계를 함께 밝힌다. 인간 본성의 완전한 회복은 현세의 교육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회복의 근거와 가능성은 '이미(already)' 주어졌지만, 인간과 세계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not yet)' 성취되지 않은 완성의 차원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자율적 능력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대신하여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성취하는 수단도 아니다. 교육은 이 긴장 속에서 인간이 왜곡된 이해와 의지 및 습관을 교정하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한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형성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Hábl, 2011: 146-148).

이때 인간은 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응답의 주체이다.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손상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배우고 판단하며 실천하고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 형성은 개인의 능력 향상이나 내면적 성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 타인, 공동체, 세계와의 관계를 왜곡하였다면, 인간 형성 역시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인간이 형성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이나 능력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

을 이해하고 이웃과 공동체 및 세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존재로 성장한다는 뜻이다(Choi, 2014: 330-351; Chung, 2021: 168, 174-177).

결국 코메니우스의 인간 이해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규정한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형성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스스로 완성되는 존재는 아니다. 교육은 바로 이 창조된 가능성과 타락한 현실 사이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지성・덕성・영성의 질서를 갖추며,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 앞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도록 돕는 형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능력 계발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 삶의 방향과 관계 전체를 다루는 실천으로 이해하게 한다.

3. 교육: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는 교육의 근거와 방향을 규정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에게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왜곡된 인식과 삶의 방향을 교정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형성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를 인간 삶의 형성 과정 안에서 연결하는 매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매개'는 교육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론적 중개자로 놓인다는 뜻이 아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적・형성적 실천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의 성격은 먼저 교육 내용에서 확인된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지적 능력의 발달에 한정되지 않고 지성・덕성・영성의 통합적 형성을 지향한다. 지성은 사물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차원이며, 덕성은 인식한 선을 의지하고 이를 삶의 습관과 행위로 실천하는 차원이다. 영성은 인간의 앎과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궁극적인 방향을 갖도록 하는 차원이다. 이 세 차원은 서로 독립된 교육 영역으로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일정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 안에서 연결된다(Chung, 2003a: 28-30; Hábl, 2011: 142-148; Lee, 2004: 125-143).

이러한 통합은 지식 자체에 대한 코메니우스의 이해와도 관련된다. 그에게 참된 앎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소유하거나 명제를 기억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은 사물의 원리와 원인, 올바른 용도를 이해하고, 그 앎을 삶 속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Comenius, Jeong trans., 2013: 229, 237; Velilla-Jiménez, 2025: 440-443). 따라서 지성이 덕성과 영성으로부터 분리되면 교육은 인간의 앎을 삶의 방향과 연결하지 못하고, 반대로 덕성과 영성이 지적 이해로부터 분리되면 교육은 인간이 무엇을 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코메니우스에게 교육 내용의 통합은 여러 교과를 외형적으로 결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앎과 의지와 삶의 방향이 하나의 형성 목적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매개적 성격은 교수 방법에서도 드러난다. 코메니우스는 교육이 인간의 성장과 인식의 질서를 거슬러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교육의 과정이 자연과 인간에게 부여된 질서에 부합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의 교수 원리를 점진성・직관성・실천성의 세 측면으로 종합한다. 점진성은 배움과 성장이 학습자의 준비와 발달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고, 직관성은 인간의 인식이 감각을 통하여 사물과 실제 세계에 접촉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실천성은 배운 내용이 관념이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행위와 사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청을 뜻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서로 분리된 교수 기법이라기보다 인간의 성장, 인식, 실천이 하나의 형성 과정 안에서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특히 실천성은 코메니우스가 교육을 인간 형성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는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용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Comenius, Jeong trans., 2013: 207). 여기서 실제적 적용은 단순히 학습 내용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앎이 인간의 판단과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청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이 배운 바에 따라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점진성・직관성・실천성은 이러한 점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원리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인식과 실천을 하나의 방향 안에서 형성하도록 교육을 조직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Hábl, 2011: 143-148; Hill, 1975: 303-306; Lee, 2004: 137-143).

이처럼 코메니우스의 교육에서는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지성・덕성・영성의 통합이 어떠한 인간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교육 내용과 목적의 문제를 드러낸다면, 점진성・직관성・실천성은 그러한 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교육 방법은 이미 정해진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성장 및 인식에 관한 이해가 구체적인 교수 과정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이 하나의 인간 형성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은 단순한 교수 기술의 체계로 환원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을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항 사이에 기계적으로 위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이해는 인간 존재의 근거와 목적을 제공하고, 인간 이해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및 방향을 규정하며, 교육은 이러한 이해가 인간의 앎과 의지, 습관과 행위, 그리고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 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배우고 판단하며 실천하고 응답하는 주체로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를 인간 삶의 구체적인 형성으로 연결하는 관계적 실천이며, 동시에 인간 형성이 다시 공동체와 세계의 관계 속으로 확

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반이 된다.

Ⅲ. 다층적 순환 구조와 범교육적 확장

하나님 이해가 교육의 근거와 목적을 제공하고, 인간 이해가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규정하며, 교육이 이를 인간 삶의 형성 과정에서 구체화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하나님・인간・교육의 연관성을 '다층적 순환 구조'라는 관점에서 종합하고, 이러한 인간 형성의 구조가 범교육을 통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1. 하나님・인간・교육의 다층적 순환 구조

본 연구에서 '다층적 순환 구조'는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육 이해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면서도 인간 형성이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연결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 개념이다. 여기서 '다층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인간・교육이 동일한 위상에 놓인 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의 존재 근거이며 인간 형성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고,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지닌 존재이며, 교육은 인간의 형성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매개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 각 층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 관계는 대칭적이거나 등가적이지 않다.

'순환'이라는 표현도 세 요소 사이의 단순한 반복이나 상호 인과적 피드백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해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인간 이해는 교육의 필요와 목적 및 방향을 규정한다. 교육은 이러한 방향을 인간의 앎과 판단, 습관과 행위 속에서 구체화하며, 형성되는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이에 응답한다. 따라서 여기서 순환성은 근거-이해-형성-응답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적 연속성을 의미한다. 교육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다시 규정한다는 의미의 역방향적 인과는 이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의 '순환'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변증법을 분석적 틀로 차용한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하나님・인간・교육의 관계를 변증법적 자기 전개의 과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 교육과 동일한 위상에서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항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존재론적・목적론적 근거이다. 따라서 다층적 순환 구조는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닌 층위들이 인간 형성이라는 목적 안에서 연결되고, 그 형성이 다시 응답의 삶으로

이어지는 비대칭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관계 구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인간 형성을 완결된 상태보다 지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게 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한 뒤 형성이 종료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 이해에 따라 실천하고 응답하면서 계속 형성되는 존재이다. 교육 역시 인간을 특정한 완성 상태에 도달시키는 일회적 수단이라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과 관계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다층적 순환 구조는 하나님·인간·교육의 관계를 단순히 하나의 모형으로 배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에서 인간 형성이 어떠한 근거와 방향을 지니며 지속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인간 형성이 특정한 연령이나 학교교육의 범위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구조가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은 모든 인간과 삶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범교육의 구상과 연결된다.

2. 범교육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공적 확장

앞 절에서 살펴본 다층적 순환 구조에서 인간 형성은 특정한 시점에 완결되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지속되는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교육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단순히 넓히는 구상이라기보다, 인간 형성의 대상을 모든 인간과 전 생애로 확장하고 그 형성의 책임을 공동체와 세계의 차원까지 연결하는 교육적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코메니우스에게 모든 인간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근거는 개인의 사회적 조건이나 능력에 앞서 인간이 공통된 창조의 근거와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데 있다(Lee, 1994: 178-179; Spinka, 1953: 156-161). 따라서 범교육의 보편성은 동일한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도 인간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상은 '모든 사람에게(*omnes*), 모든 것을(*omnia*), 철저하게(*omnino*)'라는 범교육의 원리에서 구체화된다. *omnes*는 모든 인간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omnia*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습득한다는 의미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앎과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점을, *omnino*는 그러한 형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하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Choi, 2005: 146-149; Hábl, 2015: 117-119; Velilla-Jiménez, 2025: 443). 따라서 이 세 원리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서로 분리하기보다 모든 인간의 형성을 하나의 교육적 질서 안에서 연결한다. 코메니우스의 범교육 구상에서 인간의 삶 전체가 교육의 장으로 이해된다는 점도 이러한 원리와 연결된다.

범교육의 전 생애적 성격은 인간 형성이 일정한 연령이나 학교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 『대교수학』이 네 단계의 학교를 제시한 데 비해, 『범교육학』은 인간

의 삶을 태아기에서 노년과 죽음의 준비에 이르는 여덟 단계의 학교로 확장한다(Comenius, Jeong trans., 2013: 278; Comenius, Chung trans., 2008: 414). 이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형태로 만드는 평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통된 형성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연령과 조건, 삶의 단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Kim, 2013: 50-60; Lukaš & Munjiza, 2014: 37-39; Na, 2015: 276-282). 따라서 학교는 인간 형성의 중요한 제도이지만 교육 전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 자체가 지속적인 배움과 형성의 과정으로 확장된다. 『범교육학』이 기존의 교육 원리를 인간의 전 생애와 전 인류의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범교육의 확장은 시간적 범위의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라면, 교육의 결과 역시 개인의 내면적 성장이나 자기완성에 한정되기 어렵다. 형성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고,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의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코메니우스가 인간의 형성과 교회 및 사회의 개선, 더 나아가 세계의 개혁을 서로 분리하지 않았던 점은 이러한 방향을 보여 준다(Choi, 2014: 320-338; Chung, 2021: 163-168, 174-177, 185-187). 범지혜가 범개혁의 전망으로 전개된다는 분석 역시 인간의 앎과 형성이 개인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세계를 새롭게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Čížek, 2019: 204-217).

『빛의 길(*Via Lucis*, 1668)』은 이러한 확장의 공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코메니우스는 세상의 혼란을 피해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는 것으로 공동의 어둠이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Comenius, Lee trans., 1999: 78), 범지혜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인간이 진리와 선을 함께 인식할 때 인간의 삶과 공동체 및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배열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Comenius, Lee trans., 1999: 87). 따라서 교육은 개인에게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는 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형성된 인간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범교육을 인간 형성의 공적 확장으로 해석한다. 다층적 순환 구조가 하나님・인간・교육의 관계 속에서 인간 형성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설명한다면, 범교육은 그러한 형성의 범위가 모든 인간과 전 생애, 공동체와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은 단순한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나 학교 제도의 보편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형성을 개인적 완성에서 종결시키지 않고, 형성된 인간이 이웃과 공동체 및 세계에 대한 책임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지평을 드러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교수 방법이나 범교육에 관한 개별 이론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인간·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을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교육 가능성과 질서의 근거로, 인간을 형성의 대상이자 응답의 주체로, 교육을 관계적 형성의 매개 구조로 분석하고, 이러한 연관성이 범교육을 통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코메니우스에게 하나님 이해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 근거와 교육의 목적을 제공하며, 인간 이해는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및 방향을 규정한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형성될 가능성을 지니지만,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의 가능성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남아 있는 형성 가능성에서, 교육의 필요성은 타락으로 인해 그 가능성과 삶의 방향이 왜곡되었다는 현실에서 함께 도출된다. 인간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배우고 판단하며 실천하고 응답하는 형성의 주체이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나 자연적 능력의 계발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지성·덕성·영성의 질서를 갖추며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관계적 형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해석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이 지식 습득을 넘어 성품과 삶의 방향을 포함하는 인간 전체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Hábl, 2011: 142-148; Hábl, 2015: 118-123; Velilla-Jiménez, 2025: 434-443).

본 연구는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육 이해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면서도 인간 형성이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연결되는 관계를 ‘다층적 순환 구조’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인간·교육은 동일한 위상에서 상호 작용하는 세 요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관계 전체의 존재론적·목적론적 근거이며, 인간과 교육은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또한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나 상호 인과, 대립과 종합을 통한 변증법적 자기 전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해가 인간 이해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고, 인간 이해가 교육의 필요와 목적을 규정하며,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비대칭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대신하는 구원론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배우고 왜곡된 이해와 습관을 교정하며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형성의 매개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간 형성의 구조는 범교육을 통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전 생애와 공동체 및 세계로 확장된다. 범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제공하거나 단순히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구상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된 창조의 근거와 목적을 지닌 형성의 존재라는 이해에 기초하여, 각자의 연령과 조건 및 삶의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요청

이다. 이에 따라 인간 형성은 학교교육이나 특정한 연령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형성된 인간의 책임도 개인의 내면적 성숙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및 세계를 향해 확대된다. 이러한 공적 확장은 범지혜가 범개혁의 전망으로 전개된다는 분석과, 코메니우스의 사상이 인간과 문화 및 세계의 형성을 포괄한다는 해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Čížek, 2019: 204-217; Rydberg, 2020: 126-128). 따라서 범교육은 하나님 · 인간 · 교육의 구조적 연관성이 인간의 전 생애와 공동의 세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공적 지평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효율적인 교수 기술, 지식의 확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제도, 개인의 내면적 성숙을 위한 형성론 가운데 어느 하나로 환원되기 어렵다. 그의 교육사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무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으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시 어떠한 인간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목적과 연결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 · 인간 · 교육의 다층적 순환 구조와 범교육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교수학과 인간 형성, 범지혜와 범교육을 하나의 관계적 형성 질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데 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의 교육에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교육이 지식과 능력의 획득에만 머물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받은 인간은 공동의 세계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인간 이해와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의 공적 책임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 · 사상적 자원으로 의미를 지닌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Comenius, J. A. *The Great Didactic*. Trans. by M. W. Keatinge (1967). New York: Russell & Russell; 정확실 옮김 (2013). 대교수학. 서울: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Comenius, J. A. *The Great Didactic*. Jeong, H. S. (trans.) (2013). Seoul: Kyoyookbook.

Comenius, J. A. *Via Lucis*. Trans. by E. T. Campagnac (1938). *The Way of Light*. Liverpool: University Press; 이숙종 옮김 (1999). 빛의 길. 서울: 세종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Comenius, J. A. *The Way of Light*. Lee, S. J. (trans.) (1999). Seoul: Sejong Munhwasa.

Comenius, J. A. *Pampaedia Allerziehung*. In dt. Übers. hrsg. von Klaus Schaller (1991). Sankt Augustin: Academia-Verlag Richarz; 정일웅 옮김 (2008).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서울: 그리심. (Translated in English) Comenius, J. A. *Pampaedia*. Chung, I. U. (trans.) (2008). Seoul: Grisim.

[Secondary Sources]

Choi, J. K. (2005). *Der Theologe Johann Amos Comenius und die Entwicklung seines Erziehungsdenkens von der ≪Didactica magna≫ (1657) zur ≪Pampaedia≫ (posthum) unter Berücksichtigung der neueren deutschsprachigen Comenius-Forsch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Choi, J. K. (2011). Comenius'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the Direction of Holistic Faith Education. *Korea Reformed Theology, 29*, 279-310.

Choi, J. K. (2014). Comenius's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Labyrinth of the World and the Paradise of the Heart.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3*, 319-352.

Chung, I. U. (2003a). The meaning of Comenius's pansophia and universal education. *Theological Review, 70*(1), 9-32.

Chung, I. U. (2003b). A study on Comenius's theory of Pampaedia (I). T*heological Review, 70*(3), 55-83.

Chung, I. U. (2021). Comenius's spirituality and humanistic spirit. *Theology and Church, 15*, 159-201.

Čížek, J. (2019). From pansophia to panorthosia: The evolution of Comenius's pansophic conception. *Erudition and the Republic of Letters, 4*(2), 199-227.

Hábl, J. (2011). Character formation: A forgotten theme of Comenius's 'didactics'.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 15*(2), 141-152.

Hábl, J. (2015). Jan Amos Comenius and his 'forging place of humanity'.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39*(2), 113-127.

Hill, A. G. (1975). Wordsworth, Comenius, and the meaning of education.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26*(103), 301-312.

Kim, H.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education in Comenius. *College and Gospel, 12*, 57-89.

Kim, S. R. (2013). *A study on Comenius's Pampaedia as a foundation of educational thought for Christian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ee, S. J. (1987). *The relationship of John Amos Comenius's theology to his educational ideas*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3). (No. PHL2313387)

Lee, S. J. (1989). A study on Comenius's view of nature and new teaching method. *Theological*

Thought, 67, 944-983.

Lee, S. J. (1994). A study on Comenius's universal education. *Collected Papers on Korean Christian Culture, 2*, 175-216.

Lee, S. J. (2004). A study of the pious education of John Amos Comeniu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 125-148.

Lukaš, M., & Munjiza, E. (2014). Education system of John Amos Comenius and its implications in modern didactics. *Online Submission, 60*(31), 32-44.

Maviglia, D. (2016). The main principles of modern pedagogy in Didactica Magna of John Amos Comenius. *Creative Approaches to Research, 9*(1), 57-67.

Na, H. G. (2014). *A study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structure of Comenius' Pansoph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Rydberg, A. (2020). John Amos Comenius and the modern concept of culture.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62*, 111-132.

Schaller, K. (1969). Sein und Bewegung in den Frühschriften Komenskys.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23*(1), 36-46.

Spinka, M. (1953). Comenian pansophic principles. *Church History, 22*(2), 155-165.

Velilla-Jiménez, H. E. (2025). Comenius's theory of knowledge: Method, philosophy, and education (Bildung).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44*(4), 431-447.

나현규 (2015). 판소피아와 교육.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Na, H. G. (2015). *Pansophia and education*. Seoul: Hakjisa.